

---

제4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일시 1958년6월2일(단기4291년) 상오10시35분

---

식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식사(의장)
  4. 인사(시장)
  5. 만세삼창
  6. 폐회
- 

(10시 35분 개회)

○간사장 김형익; 자리를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

(일동 국민의례)

지금 의장님께서 개회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의장 박명준; 이번 제4회정기회의는 민의원의 개최기와 때를 같이해서 개최하게 됨으로서 더 의의가 깊은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애하는 의원동지여러분은 그 건전한 모습으로서 신성한 의사당안에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우리들이 도리켜서 불때에 우리정부의 졸렬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국민은 기아선상에서 해매고 모든 산업은 다 마비상태에 들어가있고 우리시민의 생활은 질식상태에 놓여있음으로서 우리가 거의 날마다 듣다시피하는 「어떻

게 하면 살수있느냐」 하는 이러한 울부짖는 소리를 가끔 가끔 듣고있습니다.

그러면 47명은 서울 160만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몸소 몸을 바쳐서 신성한 의사당안에서 우리의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만분의일이라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할수있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가면서 노력하고있는중이 올시다.

그러나 물론 우리 역량이 일정한 한도가 있기때문에 우리의 말은바 소범위안에서라도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시민에게 좋은 더많은 복지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의원들은 많이노력하 실줄 믿고 있는바이 올시다.

금번에 더욱 기쁜것은 보궐선거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해서 당선되신 세분 우리동지를 또한 맞게된 이 시간에 한층 더 기쁨을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이제 이 47인으로서 과연 동심협력해서 우리는 믿은 생각이 하나로 되어가지고서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하여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오직 우리의 개인에게 미치는것이 아니라 160만 시민에게 덕이되고 유익이되고 리가 되는 방향으로 많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금번 정기회의는 여러가지 산적해있는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을 할수있는데로 시간을 절약하고 신사도에 입각해서 한건한건을 신속히 심의 통과해주실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요한것은 더욱 4290년도 결산심의에 대한 중요한 안건도 있고 그 이외 여러가지 예산회의나 다름없는 중요한안건이 많이있습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아낌없는 노력을 바라고 다시금 여러동지들에게 부탁드리는바이 올시

다.

그러면 건전한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맡은바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심갈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로서 개회사의 말씀으로 대합니다.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부의장 이중구; 시장님이 사고가 계셔서 제가 대신나왔습니다.

단기4289년9월5일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처음으로 개회식을 거행한 이래 임시회는 23회나 됩니다마는 정기회는 이번으로서 네번째를 마지한 것입니다. 그간에는 제반 어려운 정세하에서 시정창달을 위하여 꾸준하신 노력의 보람이 나타나서 시행정이 날로 진전되어가고 있음에 대하여는 경하를 드리며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번 회기에 있어서는 단기4290년도 결산안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안건이 상정되어질것으로 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정해진 재정원칙과 실정을 지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시세수입이 제때 제때 확보되지 못하니 계획그대로의 성과를 거두기에 애로가 불소하여 결산기를 당할때마다 시재정확보에 대한 시민의 협조가 한층더 절감되고 있습니다. 각위께서는 이러한 점에 많은 이해를 가지시고 제반안건 심의를 순조로히 진행하시어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하나마 이로써 인사의 말씀에 대합니다.

단기4291년6월2일

서울특별시장 허 정

○간사장 김형익; 다음은 만세삼창……. 만세삼창은 부의장

님께서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부의장 선창으로 일동만세삼창)

이로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는 내일아침 열시에 이자리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 45분 폐회)

---